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7년 2월

선교편지 제 9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도 맡겨주신 사역을 원활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사역지에 부임을 하고 거의 3년간을 자동차가 없이 이곳의 일반 대중 교통인 시외버스와 지프니등을 이용하여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왕복 네 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온 몸이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현지인보다 더 불쌍한 모습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 와서는 대충 씻고 식사를 거르고 잠을 자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고도 유용한 자동차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디고스 예일 교회의 건축과 현재 감당하는 여러가지 사역들이 과연 가능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차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주의와 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려면,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유한 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서 실제로 등록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 (VIN)'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쳐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차량 제조사에서 엔진의 깊숙한 곳에 표시한 엔진 번호와 앞 바퀴 부근의 차체(Body)에 표시된 번호를 담당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확인하고 나서야 차량 운행을 허가해 줍니다. 불법으로 차량을 분해, 개조, 조립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이곳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2년전까지 이곳에서 제가 지불했던 자동차 보험비는 '약 \$30' 정도 였습니다. 매월 \$30이 아닌 '연간 \$30'입니다. 아직까지 '보험'이라는 개념이 충분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이라는 이름 값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운행되는 수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등의 보험료 수준이 그 정도이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부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비가 적어서 좋기는 한데, 운전을 할 때마다 항상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2년전에 지인을 통하여 제 차에 어울리지 않는 조금 과도한(?) 차량 보험에 새롭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연간 \$30에서 \$280' 로 대폭 인상 되었지만, 미심쩍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현지 자동차 딜러에서 구입한 새 차 외에는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어서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정착한지 벌써 9년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제법 이곳 모든 생활 방식에 익숙해 질만도 한데, '운전' 만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처럼 아슬 아슬 하기만 합니다. 뉴욕에서 20여년간 무사고로 운전하고, 이곳에서도 무사고로 지금까지 왔는데, 운전이 점점 더 익숙해 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제 아내가 당부하는 인사는 아직도 '차 조심하세요.'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이곳 선교지에 왔는데, 만약 원치않는 사고로 인하여 이곳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라도 한다면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음보다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운전 에 앞서서 항상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절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위클리프 사역을 하고 있는 다바오에서 교회가 있는 디고스까지는 거리상으로는 35 Mile (55 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자동차로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동행하는 제 아내는 운전중에 아슬 아슬한 순간마다 차안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 얼마나 힘을 쏟는지, 디고스를 다녀 오는 날이면 파김치처럼 되어 버리고 맙니다.

운전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질서를 지키면 좋겠는데,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배워 나가면 언젠가는 변화되겠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학교 앞이 가장 무질서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등, 하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교 앞을 지나려면 많은 인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들을 마치 놀리거나 하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의 진행을 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들도 종종 보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교통관련 특단의 조치가 도시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교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거나,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면 '경범죄'로 즉결 처분을 받도록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약 \$4 정도의 벌금을 내야하고, 길 옆에 세워 놓은 교육용 대형 트럭에 올라가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칠판을 앞에 두고 즉석 교통 법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조치로 인하여, 그전만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도로인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던 혼잡한 도로가 마침내 '질서'가 있는 사람사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줄을 맞추어 육교를 이용하고, 신호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열을 하고 있는 '진귀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구간과 시간에만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운전을 하게 될 때마다, 아직도 마치 운전을 배우고 도로에 처음 나서는 것처럼 긴장이 많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0)

 교회 근처 띠구만 마을에 살고 있는 '미셀' 부인은 '디고스 예일 교회'가 건축이 된 2015년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교인입니다. 트라이시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남편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지만, 미셀부인은 어린 두 자녀 '아이반', '사빌'과 함께 주일 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낡은 우산을 쓰고 교회로 향하여 걸어 오는 미셀부인과 옆에서 신바람이 난 두 자녀가 장난을 치며 엄마를 따라오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수줍음으로 워낙 말이 없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서면 반가움을 어린 두 자녀들과 대신 진하게 나누곤 합니다.

띠구만 마을에 들어서면, 언제나 바쁘게 일하는 '미셀' 부인과 엄마 주위에서 신나게 노는 두 자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마을 공동 수돗가에서 이웃들의 빨래를 모아 대신 세탁 해주는 일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빨래를 힘껏 비벼야 되는지 손목 주위가 언제나 붉게 물들어 있고, 얼마나 아픈지 때때로 주일에는 손목에 붓대를 감고 오기도 합니다. 빨래를 대신 해주는 일감이 없을 때에는 두 자녀와 함께 인근 주변을 돌아 다니며 마른 나무를 주워 이웃에게 땀감으로 파는 생활력이 강한 교인입니다.

교인들을 심방하게 되면 비록 낡고 비좁지만 집안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미셀 부인의 집을 심방해야 할 때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두막이 낮게 설치된 모양의 집에 살고 있는데, 가족외에 외부인이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 비해 비교적 과체중인 제가 올라가 앉게 되면 금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술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변에서 서서 친교를 나누고 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문할 때면 미셀 부인의 자녀인 '아이반'과 '사빌'은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아이들로부터 최고의 환대를 받곤 합니다.



미셀 부인은 주일 뿐만 아니라 거의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 청소를 도와주고 있고, 친교 식사를 준비할 때도 부엌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말없이 수고를 해주는 귀한 교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년 3월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금년 2017년에는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초부터 시작한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도 지원하여 친구약 성경 목록을 외우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월 첫주에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13명의 남, 녀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3주에 걸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 하였고, 집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찾아가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한번에 적용하고 변화될 수 있는 쉬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모두들 도전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1월부터 '미셸' 집사님이 디고스 예일 교회 역사 이래 두번째로 '십일조'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봉투에 이름을 쓰고 매주 '50페소 (약 \$1)'를 십일조로 헌금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미셸 집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인은 몰라도 미셸 집사님 만큼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십일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을 헌금한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미셸 집사님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미셸 집사님의 큰 믿음과 순종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디고스 예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소망있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눅 15:1-4)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